

“이 술의 주인공은 통일대통령”

해남 약초 연구가 박동인씨, 천문동술 선보여



“남북통일을 이루는 통일 대통령에게 드리려고 정성껏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서 빨리 주인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남북정상회담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8일 해남의 한 약초 연구가가 진귀한 한약재인 천문동으로 담긴 술을 남북 화해주로 내놓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닷가에 자생하는 합초를 상품화해 합초박사로 통하는 박동인(54·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씨.

박씨는 지난 2005년 우수영 울돌목 인근에서 고무마와 같은 덩이 뿌리가 400여개나 달린 초대형 천문동을 채취했다.

박씨는 10여 년 전부터 약초연구를 시작해 천문동의 인공재배와 토종참외인 팔외를 복원하는 등 약초재배라는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총 10kg에 달하는 천문동 술은 이중 가장 고가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환 전남도 교육감은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육성학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당부했다.



김정환 전남도 교육감은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육성학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당부했다.

‘삼성-동아일보 열린 장학금’ 수여식 가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하는 삼성-동아일보 열린장학금(이하 열린 장학금) 수여식이 8일 삼성광주전차 GTC(Global Training Center)에서 열렸다. 열린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일시적 생활곤란 등으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 게시판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주 승 평 회장

“외지 선수단, 고향집 같은 편안함 느낄 것”

“고향집을 찾은 듯한 편안함을 제공해 선수들 사기 진작과 광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승평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이 8일 일주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 제88회 전국체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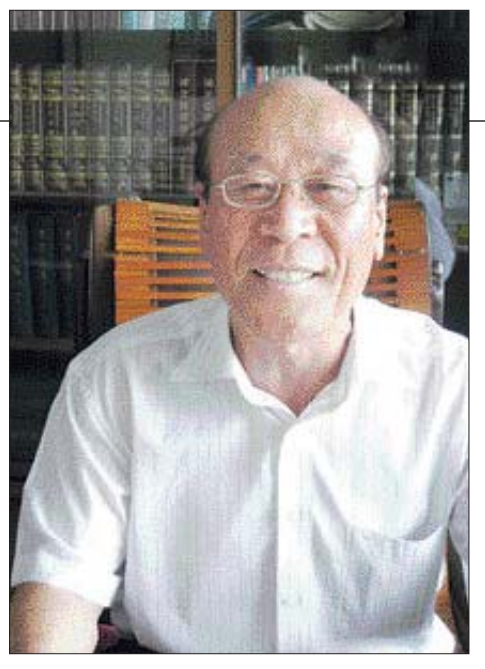
등을 하면서 체전 준비를 해왔지만 주회장은 모든 선수단과 관광객이 떠나는 마지막날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업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귀중품 도난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결·안전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위생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간판·에어간판 등 자율 수거

“지난 5일부터 각지의 선수단이 광주를 찾아오면서 숙소 앞에 환영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9백여 회원업소들이 성공적인 체전을 위한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과 친절 교육

위생·친절 최선, 성공체전 앞장

위생과 친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외부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주시의 발전과 숙박업의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체전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회장은 편안한 공간의 제공뿐 아니라 광주 체전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선수



들 응원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경기 결과가 좋아야 선수단도 오래 머무르면서 광주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지 않을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따뜻한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배려와 함께 선수들 응원에도 나서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글 선생님 된 일본인 주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와시미네 모토코씨 가족.

정성 거주, 와시미네 모토코씨

이주 여성에 조금 과정 가르쳐
그는 한글을 배우는데 가장 필요한 비결로 ‘용기’를 꼽았다. 그는 신문을 배달하거나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라도 건네며 말을 익혔고 글을 배울 때에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초급 학생들에게 ‘한글을 빨리 배우려면 모르는 것은 창피해 하지 말고 꼭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한글 문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알고 나면 외국인들도 모두 재밌어 한다”고 말했다.
‘오’ 발음이 어렵다는 그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되면 ‘일본 사람은 나쁘다’고 배울 텐데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막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잘 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 거주, 와시미네 모토코씨

이주 여성에 조금 과정 가르쳐
그는 한글을 배우는데 가장 필요한 비결로 ‘용기’를 꼽았다. 그는 신문을 배달하거나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라도 건네며 말을 익혔고 글을 배울 때에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초급 학생들에게 ‘한글을 빨리 배우려면 모르는 것은 창피해 하지 말고 꼭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한글 문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알고 나면 외국인들도 모두 재밌어 한다”고 말했다.
‘오’ 발음이 어렵다는 그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되면 ‘일본 사람은 나쁘다’고 배울 텐데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막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잘 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선수단, 광주시에 미화원 작업복 1천벌 기증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제(在)중국 선수단이 8일 광주시에 환경미화원 등이 입을 작업복 1천 벌을 기증했다.
이시현(53) 재중국 선수단장은 “중국에 있어도 항상 고국과 고향을 잊는 적이 없었다”며 “정성으로 환대해 준 고국동포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기 위

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는 시청 및 5개 구청 환경미화원 등 920여 명에게 이 작업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중국 선수단은 지난 2005년 창설됐으며 이번 광주체전에 축구와 테니스, 볼링, 골프 등 8개 종목에 11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전라도 사투리 연구’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세종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 선정

광주일보에 ‘전라도 방언’을 연재(2006년 1~8월) 하는 등 전라도 사투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이돈주(70) 전남대 명예교수가 국어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6회 세종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정신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민족문화·학술·교육·통일외교·사회봉사 등 5개 부문에 걸쳐 뚜렷한 업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통령상장과 함께 상금 3천

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한글날인 9일 오후 1시30분 문화관광부 차관실에서 열린다.
이 명예교수는 한자학, 방언, 훈민 등을 연구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글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정성필기자 camus@

개그맨 정재환씨 “이젠 한글사랑 전도사”



“한글날이 다가오면 유독 바빠지는 연예인이 있다. ‘개그맨’이라 부르기엔 다소 어색한 정재환(46)씨다. 한글문화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수년째 한글 사랑 전도사로 활약하며 ‘우리말 지킴이’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 상근관대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생을 밟고 있으면서 방송(EBS ‘코리아코리아’, KTV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 등) 활동을 병행하는 그는 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의 한글 사랑은 쉴 새가 없다.
그는 3주 전부터는 정부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칭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대학로에서 전개하고 있다.
“동사무소는 정부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여기서부터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답지 않은 외래어 남용의 거죠.”
그는 생활 속 ‘외래어 남용’의 또다른 예로 외국어가 적힌 옷을 별 생각 없이 입는 행태를 꼬집었다. 또 “방송을 봐도, 방송 언어 순화에 관한 자료 집을 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언어 사용은 변함 없게 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등 한글의 오염은 쓰는 우리들의 자세에 있다”고 했다.
정씨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뭐가 ‘맛다, 틀리다’보다 ‘한국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신대 교수평의위원회 강성후교수 의장 선임

강성후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동신대 평의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강 의장은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제2대 의장으로 선출돼 2009년 1월 말까지 평의위원회를 이끌어간다.

인사

- ◆남도일보 ▲논설실장 김선기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전보 ▲북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상수
내방 ▲김정민씨(광주지방 국제청장)

모임

- ▲동신대 건축학과 20주년 기념 행사는 13일(토) 오후 6시 하당근 관광호텔.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김운세) 임시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19일(금) 오후 6시30분 유튜브아 웨딩홀 4층 대연회장. 369-6882~3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정근) 월례회=9

모임

- 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 = 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 =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 =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고졸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정성껏 설치했습니다 -대표구제진-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충무로점)
사전예약 하신 분께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문의 (062) 521-1100

모임

-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부음 ▲윤정현(전 해남 황산 동초교 교장)씨 별세 연수·영배·양수·춘화·태일·보일(금융감독원 팀장)·혜주씨 부친상 부영규·박상률씨 병부상 =발인 11일(수) 봉선동 천주교회.
▲하영술(서양화가)씨 별세 나윤·주희씨 부친상 영규(제 7273부대 헌병대 대령)씨 제씨상 영생(조각가)씨 백석상 =발인 9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